

국힘 당권경쟁 본격화...공부모임 띄우며 조용한 세몰이

안철수 이어 김기현 두번째 모임 '윤핵관' 등 의원 50명 참석 복적 권성동 '윤심' 쟁탈전 선두 주목 정진석·나경원도 대표 출마 채비

국민의힘의 당권경쟁이 본격화 했다. 차기 당권 유력 주자들이 공부 모임을 통해 조용히 세를 불리는 가 하면 의원 모임을 띄우며 세몰이에 나섰다.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김기현 의원은 13일 오전 자신이 주도하는 공부 모임 '혁신 24 새로운 미래' (새미래) 두 번째 모임을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의 초청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모임에는 40여명 안팎이 참석한 것으로 주최 측은 집계했다. 모임에 참여하는 의원은 5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역시 유력 당권주자 중 한 명인 안철수 의원의 전날 연 토론회에도 의원 40여명이 자리했다. 안 의원은 이후에도 주 1회꼴로 토론회를 열고 과학기술 발전, 감염병 대응, 연금개혁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들 연속 열린 의원 모임에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의원들이 각각 참석하면서 의원 공부 모임이 아니라 '정책 의원총회'를 방불케 한다는 말도 나왔다.

또 다른 유력 주자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직위상 의원 모임 등을 주도하진 않지만, 당의 '원톱'으로 전면에 나서 쏟아지는 조명을 한 몸에 받는 한편 '윤심(尹心)' 쟁탈전에서도 한발 먼저 치고 나왔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밖에 정진석 국회 부의장도 공부 모임을 준비 중이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출마를 검토하는 등 여기저기서 당권 도전에 대비한 위망업이 이어지고 있다.

아직은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의 총성이 울리지 않았기에 당권 주자들인 견제보다는 서로 모임에 참석해서 축사를 하는 등 '뽕앗이'하는 양상이다.

안 의원은 이날 김 의원 주최 모임 참석 후 기자들에게 "어제 김기현 대표가 저의 모임에 와주시고, 마침 김광두 교수님 저랑 오랜 인연이 있는 분이시고 정말 통찰력 있는 분이어서 말씀도 듣고 인사도 나누러 왔다"며 "모든 의원이 합심해서 당을 안정시키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뜻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 행사 축사에서 안 의원의 중학교 동창 사이라는 친분을 내세우면서 "위기만큼 단합을 잘하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했으면 좋겠다. 안 의원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권 주자 간 미묘한 신경전도 감지된다. 김 의원은 전날 토론회 후 페이스북에 안 의원을 향해선 "당적을 가진 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 자신에 대해선 "당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지켜온 뿌리 정신"을 언급했다.

인풋 보면 덕담처럼 보이지만, 안 의원과 자신을 각각 '굴러들어 온 돌'과 '박힌 돌'로 대비하는 것처럼 읽힐 수도 있는 대목이다.

앞으로 '전대 시계'가 더욱 빨리 돌아가면 당권 주자 간 신경전이 본격화하리란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지난 8일 정계 이후 닷새가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무대모드 속에서 상황을 관망하는 분위기다. 당 안팎에서는 이제 그만 윤리위 결정을 수용하라는 목소리가 여전하지만, 이 대표 입장에서는 정계 수용이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침묵 속에 잠행을 이어가리란 전망도 나온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13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개막식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앞줄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인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가 끝나자 박수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페이스북.

이준석 잠행 5일만에 무등산 등반 인증샷 "광주와 했던 약속 늦어질 뿐 잊지 않겠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의 정계 이후 광주 무등산 찾은 사실을 13일 공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무등산 등반 사진과 함께 "정초에 왔던 무등산, 여름에 다시 한번 꼭 와 봐야겠다고 얘기했었다. 원래 7월에는 광주에 있던 약속들을 풀내려고 차근차근 준비 중이었는데 광주 시민들께 죄송하다. 조금 늦어질 뿐 잊지 않겠다"고 썼다. 그는 "앞으로도 무등산의 자락 하나하나가 수락산처럼 익숙해질 때까지 꾸준히 찾아와서 오르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가 정계 기간 무등산을 찾은 사실을 일부

러 공개한 것은 2030 세대와 함께 본인이 선거 기간 공인한 호남 공략, 이른바 '서진(西進) 정책'을 상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대선을 앞둔 지난 2월 1일 무등산에 올라 호남 득표율 20%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윤리위 결정이 나온 지난 8일부터 닷새째 잠행을 이어 가고 있는 이 대표가 자신의 행적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후 목표를 거쳐 제주도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文정부 군·국정원 겨는 검찰... '서해 피살' 기록삭제 규명 주력

국방부·국정원 직원 연이어 조사 '잊힌 지시' 여부 수사 확대 가능성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사건이 정보기관의 '기록 삭제 의혹'을 둘러싼 진실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최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국정원 관계자들도 비슷한 시기에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와 국정원은 이씨 사건과 관련한 '기록 삭제' 의혹의 중심에 선 기관들이다. 사건 당시 생산된 감청 정보와 이를 토대로 생산된 보고서 등을 임의로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이씨가 피살된 직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 올라간 일부 기밀 정보에 대해서만 "필요한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밈스에 올라간 정보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다른 부대에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삭제했을 뿐이며 통신감청 원본은 지우지 않았다는 취지다.

다만 군의 설명 이후에도 정보부에서 북한군 통신 감청 원본이 사라졌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밈스에 올라간 기밀 정보를 임의로 삭제

하는 것 자체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정원이 고발한 박지원 전 원장은 사건과 관련한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보고서를 없애더라도 감청 정보 원본이 국방부 등에 남은 만큼, 국정원에서 보고서 삭제를 지시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정원은 자체 조사 과정에서 박 전 원장이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다는 직원들의 진술과 전자 문서 등이 삭제된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삭제 여부를 두고 양측 주장이 정면충돌하며 진실 공방이 펼쳐지는 만큼, 검찰 수사 역시 '진상 규명'에 우선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국힘 "북송은 반인륜 범죄"...민주 "16명 살해 흉악범 받아야 하느냐"

탈북 어린 북송 사진 공개 대립

국민의힘은 13일 '탈북어린 북송사건' 등 문제인 정부에서 발생했던 대북 관련 사건들을 '국가안보 문란'으로 규정하고 전일 정부 공격에 당력을 집중했다.

국민의힘은 '국가안보문란 TF(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문제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귀순 의사가 있는 탈북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통일부가 2019년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에서 강제북송 될 당시 찍은 사진을 공개하자,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을 말살했다"며 관

계 당국 조사를 통한 진실 규명과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경제위기와 인사논란, 당 내홍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가운데 안보 이슈를 꺼내 들어 보수진영 내 결집부터 꺾으려는 의도도 깔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 정부는 탈북어민이 '살인자'라고 주장했는데, 그 출처는 북한이다. 제대로 된 검증도 안 해보고 어떻게 북한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느냐"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3일 "16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흉악범 북한 주민마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 포스(TF)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안보를 인질로 삼은 정쟁 시도를 계속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이들이 스스로 월남한 것이 아니다. 우리 군이 북한한계선을 넘어 온 이들을 생포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법을 봐도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여당의 공세를 차단했다. /연합뉴스

봄에 떠나는 그로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도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도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레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메이투어: 062-385-0515 | 투어나우: 062-575-8019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20주년!!

2022년 임인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